

21. 연천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21-1. 전곡읍 신답리 산제사

1) 마을개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에 속한다. 원래 양주군 청송면 금촌리 지역으로 한탄강 옆에 큰 논이 있어 쏘논이라 하였다. 1914년 개안, 쇠촌, 새말, 붉은데기, 애오라지를 병합해서 신답리를 만들었다. 현재 이곳은 6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구 수는 백여 세대 정도 되고, 제사에 참여하는 가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고 팔십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곳은 38선 이북에 있어서 북쪽의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따라 행정권이 수복된 지역이다. 전쟁 이후 폐허로 변해 집터만 남아 있었지만 군에서 이 곳에 새로 집을 건설해 주고, 완공식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21-1. 신답리 산신제당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마을 입구에는 신답정미소가 있다. 정미소 정문으로 난 길을 따라 오태근(77)씨 집 뒤쪽으로 200평 정도의 평지에 짚 주저리 형태로 있다. 이 짚 주저리는 높이 230cm, 둘레 750cm로 어른 다섯 명이 감싸 안을 만큼 큰 크기로 자리 잡고 있다. 모양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뿔형 모양이다. 네 그루의 나무에 둘러싸여 꼭 끼인 형태로 있는데 원래는 평지였으나 그 자

리에 나무가 자란 것이다. 짚 주저리는 제사를 지내기 전, 동네 사람들이 모여 새로 엮어서 덮는데 작년 것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다시 씌운다. 주저리 속을 들여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속에는 옷나무를 원통형으로 잘라서 세워 놓았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하게 여겨 여기서는 어떤 벌목도 하지 않는데, 40여 년 전에 이곳에서 나무를 베어내 땀감으로 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후 딸이 병에 걸려 사망을 했다. 사람들은 산제당 터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제의과정

신답리의 제의 날씨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새벽 0시이다. 제를 지내는 달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제사를 거르지 않고 다음달로 미루어서라도 반드시 지낸다. 해가 바뀌고 정월 초닷새가 되면 제를 진행할 사람을 가려서 뽑는다. 이 때 상화주, 중화주 두 명의 화주와 축관을 뽑는다. 상화주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중화주는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보통 50세 이상에서 부정타지 않고 정갈한 사람이 화주로 선정된다. 일단 화주로 뽑히면 집 앞에 흰 새끼에 술가지를 꽂아 금줄을 치고 대문 양쪽에 황토 흙을 뿌려 부정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제사의 비용은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장이 통보를 하면 반장들이 비용을 추렴하러 다닌다. 2002년에는 가구당 3,000원씩 추렴을 했다. 예전에는 곡식으로 추렴을 했지만 지금은 돈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제물장은 상화주와 중화주가 보러 다닌다. 제물로 준비되는 것은 돼지머리와 소의 생간, 대추, 밤, 꽃감 등의 삼색과일과 조라술이다. 상화주와 중화주는 제사 지내기 이틀 전에 목욕제계하고 제당터에 가서 조라술을 묻어 놓았다가 걸러서 제사 당일 날 쓴다. 지금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많이 간소화 되었는데,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에 쓰일 돼지를 마을 주민들 중 한 명을 선정해서 직접 키우기 까지 했다고 한다. 제사에 쓰일 돼지는 까만 숫돼지로만 썼는데 새끼일 때 구입하여 키워 썼다는 것이다.

음력 정월 열나흘 날 밤 열시쯤 되면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제물을 가지고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로 간다. 이 때 제관의 역할은 상화주가 담당하고, 축관은 이장이 할 때가 많다.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부정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당터로 모이는데, 이때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많이 줄고 날씨가 포근한 날이면 40~50 여명은 모인다. 제관과 축관이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축문을 읽으면 마지막 절을 주민 모두가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각 가정의 소지를 올리면 제사는 끝이 난다.

신답리는 제사가 끝난 후 몇 해 걸려 한번씩 대동굿도 열린다. 굿은 하는 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면 대동굿을 여는데 산제사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사흘이 걸린다. 마지막 대동굿은 오년 전에 있었으며, 만신은 이 마을에서 단골로 드나드는 사람이 연결해서 불러온다. 오전 열시쯤 굿을 시작하면 동네의 남녀노소가 다 같이 참여하여 각 가정의 소원을 말하고 소지까지 올리면 사흘씩 걸릴 때도 있었다. 이 때 만신에게 주는 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가정의 정성을 더하는 것이어서 형편대로 놓는다. 정월 초하룻날이 되면 새벽 일찍 가서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3) 결 산

제사를 끝내고 나면 바로 간단한 음복을 하고 아침 여덟시면 비용을 추렴한 사람 모두가 모여 음복을 한다. 이 때 통장이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고 간단하게 보고하고 끝을 맺는다.

□ 제보자 : 오태근(남, 77세, 전곡읍 신답리 5반 90-5번지)

21-2. 청산면 대전리 산치성

1) 마을개관

양주군 청송면 지역으로 한탄강 옆에 큰 밭이 있어서 한밭 또는 대전리라 하였다. 1983년도에 연천군 청산면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이곳은 180여 가구가 거주 하고 있는 큰 지역이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지역이었다가 다시 건립하여 살고 있다. 현재 마을제사에 참여해서 비용을 추렴하는 가구는 80여 가구이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와 경계하고 있는 종현산 꼭대기에 있다. 이 산은 높이 586.6m로 예전에 산 정상에 큰 종을 매달아 놓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산꼭대기에 서면 길게 늘어서 있는 대전리와 한탄강이 한 눈에 내려 다 보인다. 과거 이곳에는 성황당이 있었지만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현재는 5년 전에 주민들이 추렴해서 만든 가로 약 70cm, 세로 55cm, 높이 35cm 정도의 대리석 제단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21-2 대전리 종현산 산신제당

현재 종현산은 군사작전지역이어서 산 전체가 군사도로가 나있으며 제당이 설치된 산정상 2m 아래로는 군사용 병커가 사방으로 설치되어 있다. 몇 해 전부터 마을총회에서 산신당을 새로 짓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종현산이 군사지역이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군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 아직은 유보상태에 있다.

(2) 제의과정

이 마을에서는 공동제의를 산치성 드린다고 한다. 제의날짜는 매년 음력 시월에 좋은 날을 골라서 지내며, 특별하게 지정된 날짜는 없다. 보통 음력 시월 초닷새나 엿새가 제의날짜로 잡힌다. 이장이 제관으로 선출될 만한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적어서 날을 보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제관을 선정하고 날을 잡아온다.

이 때 직장에 다니거나 상처한 사람은 제관 선출에서 제외한다. 제관, 축관, 상화주, 하화주를 선정하는데, 제관이나 화주로 선정이 되면 집 대문에 왼새끼로 꼬아 술가지를 꽂은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는다. 제의 날짜가 정해지면 이장과 반장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참여할 의사를 물어보고 비용을 추렴한다. 보통 제의 날짜 5일전에 비용을 추렴하게 되는데, 2002년에는 가구당 만원씩 추렴을 했다. 비용은 참여하는 가구 수와 그 해 물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상화주와 하화주는 제물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한다. 보통 상화주가 음식을 담당하고 하화주는 주변을 청소하고 풀을 깎는 등 잔심부름을 담당한다.

산제사를 지내는 날은 초저녁이면 제관, 축관, 화주들이 산으로 올라간다. 산에서는 쌀가루를 시루에 얹혀 백설기를 찌고, 메를 짓는다. 제물로는 통돼지, 삼색과일, 북어포, 조라술, 메, 시루떡이 준비된다. 1967년 이전에는 마을에서 소를 잡아 소머리와 소족 4개를 제물로 이용했지만, 비용문제로 통돼지로 바뀌었다. 돼지는 검정이면 검정, 하안색이면 하안색 한가지 색깔로 된 것만 쓴다. 제사는 밤 열두시가 넘으면 시작 된다. 제사에 관한 준비는 통장이 주관하지만 제사에 참여는 선정된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3) 결산

제사가 끝난 아침에 비용을 추렴한 가구들이 전부 모여 음복을 한다. 이 마을은 제사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렴해서 제에 들어가는 나머지 비용은 돼지를 몇 마리 더 장만하고 술도 준비하고 해서 마을 잔치로 이어간다고 한다. 마을 제사에 관해 기록해 놓은 장부는 별도로 없고 제가 끝난 뒤 음복을 하면서 이장이 보고 한다. 요즘은 비용을 쓴 내역을 결산 후 복사해서 참여한 가구 마다 돌린다.

□ 제보자 : 임상근(남, 청산면 대전리 이장)

서승철(남, 66세, 청산면 대전리 530-40번지)

21-3. 청산면 궁평리 장승제

1) 마을개관

본래 양주군 청송면 지역으로 인조와 귀인 조씨 사이의 둘째 아들인 낙선군 이숙의 묘와 재궁이 있어 궁말이라 불렸다. 1983년 대통령령으로 연천군으로 편입 되었다. 현재 2개의 행정리와 15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마을의 장승제는 1994년부터 행해졌는데, 당시 노인회장이었던 이택중씨가 장승을 구입해 마을 어귀의 장승고개에 세우고 축문을 지어 제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마을에 굶은일과 화재가 자주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장승제를 올리고 난 후부터는 화재나 굶은일이 생기지 않아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예전부터 신답리와 장탄리로 가는 옛 길목에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고 그 곳에 장승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이 곳을 장승고개라고 하였다. 지금은 건너편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고개를 밀어 평지가 되었는데 이곳에 새 장승을 세웠다. 돌



21-3. 장승(앞)과 풀무산 자살바위

로 쌓은 높이가 0.7m, 가로 10m, 세로 2m 정도의 화단 형태의 둔덕에 좌우로 향나무를 심고 잔디밭을 깔 다음 그 위에 2기의 목장승을 세웠다. 좌측에 천하대장군, 우측에 연하여 지하대장군이 서있다.

(2) 제의과정

이 마을의 제의는 매년 음력 정월 13일 오전 10시30분 경에 제가 시작된다. 제관의 선출은 마을 노인회에서 맡는다. 제를 2~3일 앞둔 정월 초에 마을 회관에서 가정에 이상이 없고 몸이 깨끗한 사람을 가려서 제관을 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양하지 않고, 그 날부터 몸을 삼가고 가급적 출타도 하지 않는다. 제물 구입은 마을 청송회에서 한다. 청송회는 18세에서 50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마을 자치기구로 회원은 50여명이다. 제물의 준비는 그 해 선거로 선출된 청송회 회장 집에서 장만하며, 대부분 마을 안에 있는 가게에서 구입한다. 제물은 비교적 넉넉하게 장만하는데 장승제가 끝나면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제물은 일반 기제사와 비슷하지만 붉은팥, 쌀, 북어, 실 등 고사음식이 첨가되는 특징이 있다. 제물을 진설 하면 제관이 분향재배한 후 술을 한잔 올린다. 이어서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나면 다시 술을 한잔 올리고 재배한다. 축문은 태우지 않고 보관한다. 합동 재배 후에는 풍물패들이 풍악을 울리며 노는 뒤풀이로 이어진다.

(3) 결 산

결산은 청송회 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의 비용은 주로 이곳 출신들의 기업가나 재산가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마을 장승제는 마을 노인회, 부녀회, 청송회 등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자치조직들이 모두 참여하여 추진하는 마을 대동잔치로 자리 잡고 있다. 장승제가 끝나면 청산면에서 면장까지 참석하는 큰 경로잔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한다.

□ 제보자 : 최호선(남, 73세, 전 마을 이장, 축관)

이병지(남, 78세, 청산면 궁평리)

21-4. 전곡읍 늘목리 산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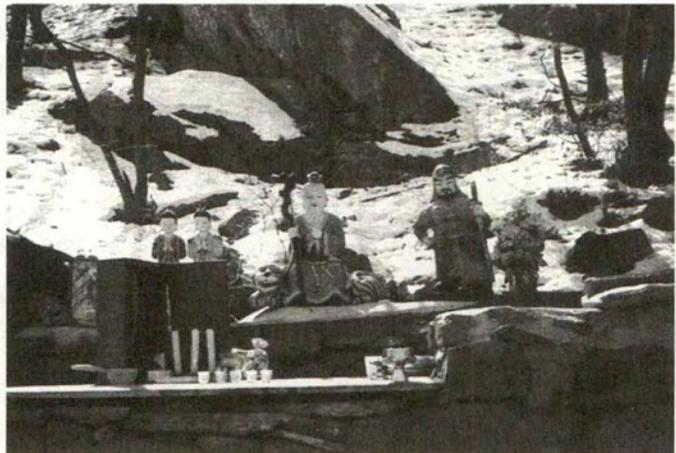
1) 마을개관

본래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고려말에 늘처사가 살았다 하여 늘목, 늘무기, 늘메기, 늘목동으로 불려오다 1914년 늘목리로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2개의 행정리, 4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늘목리는 앞자리 부근에 있는 마을로 200년 전에 채광덕이란 선비가 터를 잡은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평강 채씨만 모여 살았다.

2) 제의과정

(1) 당의 구조와 형태

현재 산신제를 올리는 곳은 감악산 7부 능선에 자리 잡은 곱채골 산신당이다. 원래 곱채골 산신당은 감악산 정상에 있던 것인데, 그 곳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마을에서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이 많아 30년 전인 1970년대에 이곳 마을 이장인 채수호씨가 주동이 되어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이다. 현재 곱채



21-4. 감악산 산제당 비둘대왕당

골에 자리 잡은 제당에는 특별한 신체가 없으나 감악산 정상에 있었을 때에는 남서낭, 여서낭으로 불리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30년 전에 군인들이 이 느티나무로 밥을 해먹고 눈과 팔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는 일화가 있다.

지금의 곱채골 산신당은 수직으로 선 바위가 연하여 병풍처럼 둘러 있는 곳으로 우물당이라 불리는 곳 외에는 전부 바위로 신체가 상징되어 있다. 비둘대왕당, 우물당, 상당 등 3개의 제당으로 구성되어있다.

(2) 제의절차

이 마을에서는 산신제 지내러 제당에 가는 것을 노구메 드리러 간다고 하거나 산치성 드린다고 한다. 제의는 음력 3월 7일 혹은 14일 등 7과 연결된 날로 꽃피고 날 좋은 때로 잡는다. 이 날에 좋지 않은 일이 겹치게 되면 제일을 미루어 다른 날로 잡아 제를 올린다. 산신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날을 잡는 것 외에는 개별적으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여 각기 제물을 올리고 개인 치성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제의는 마을 단골 만신에 의해 주재되며 그 비용은 마을 사람들 각자 성의껏 추렴하며, 만신은 이 비용으로 함께 굿을 할 무당들을 불러 굿을 진행한다.

제물은 농사를 지은 수확물로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직접 경작하여 추수한 팥, 수수, 조, 콩, 쌀 등으로 팥떡, 수수떡, 인절미, 송편, 두부, 노구메를 준비하고 이 밖에도 삼색과일과 고사리, 도라지, 숙주 등 각종 나물을 준비한다. 제주는 막걸리나 동동주를 쓴다. 제물은 주로 집안의 가장이 지게로 운반하거나 안주인이 머리에 이고 당으로 간다. 도착하면 각자 자기 몫의 젓상을 차린다. 순서대로 진설하기 때문에 당 주변에는 제물이 넓게 차려진다. 제의는 주로 자기 집의 안녕과 복을 비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의 순서는 먼저 우물당에 가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한 후 절을 하고, 비뜰당에 가서 준비해온 노구메를 적당한 자리에 진설한다. 이곳에서 안녕과 복을 빌며 제를 지낸다.

제물을 진설하고 개인적으로 비손한 다음에는 무당굿이 진행된다. 늘목 2리 당골 무당이 주로 굿을 맡아서 하고 북, 팽과리, 징잡이 등 악사는 외부에서 청해온다. 무당굿중에 각각 개인별로 소원을 빌며 소지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상당에서 제를 올린 후 고시례를 하면 제는 끝이 난다.



21-5. 감악산 산제당-상당



21-6. 감악산 산제당-우물당

(3) 결 산

마을 사람들은 각자가 준비해온 제물로 함께 음복을 하고 남은 음식은 집에 싸가지고 가 가족들과 함께 음복한다.

- 제보자 : 채수호(남, 65세, 늘목리가 고향, 이장, 음식점 경영)
이기순(여, 67세, 양주군 이대면에서 16세에 이곳으로 출가)

21-5. 연천읍 차탄 2리 군자산 산신제

1) 마을개관

원래 연천군 현내면 지혜동리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지혜동리를 차탄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내면에 편입 하였다. 현재 4개의 행정리 35개 반으로 이루어진 연천군의 중심지이다. 이곳은 마을의 공동제의라기 보다는 무당이 중심이 되는 무당굿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군자산 산신제로 불리며 매년 음력 4월 20일에 행해지고 있다. 굿의 주무는 서맹임 무녀로 16년 전 당할머니의 현몽으로 군자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제의를 진행하고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군자산은 연천읍 차탄리와 군남면 삼거리, 선곡리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327.8m로 보개 산 여맥에 있는 산이다. 당은 군자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드럼통으로 쪼개어 만든 한 평 남짓한 주실과 맞배형으로 스테이트 이중 지붕을 덧씌우고 사방이 트인 형태이다. 당집 왼쪽에는 나무를 신체로 삼아 당할머니를 좌정시키고 오색천을 감아 두었다. 당 내부에는 흰 실타래를 걸쳐놓은 바윗돌을 신체로 미륵장군을 모시고 있다. 산신제의 주무인 서보살의 꿈에 현몽하여 땅에서 꺼낸 돌을 미륵장군으로 모신 것이다. 당에는 옥수라고 부르는 샘물이 있다.

(2) 제의과정

산신제는 서보살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일부와 그와 동류의식을 가

지고 있는 무속인들에 의해 대동굿 형태로 산신제를 전승하고 있다. 이 날 행하는 산신제는 이 제당에서 열리는 굿중 가장 규모가 큰 판으로 벌어진다.

제물은 예전에는 백설기, 미나리, 조기와 밥을 올렸다. 당시에는 4월 20일 날 굿을 하고 5월 단오 때 산 정상에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고 한다. 지금은 당 할머니를 따르는 신도들과 무속인들이 제의 경비를 마련하고 제물을 준비한다. 굿은 부정풀이 부터 12거리가 진행되며 화재의 위험 때문에 다른 산신제처럼 소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3) 결 산

제의가 끝나면 복떡이라고 하여 제물을 경로당 등에 돌려 나누어 먹었다. 현재 서보살은 이 산신제를 연천읍 부인회 또는 관공서를 통해 대동굿으로 개칭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 제보자 : 서맹임(여, 69세, 황해도 출신, 34세에 내림굿 후 이 지역 단골로 활동)